

# “4차 산업혁명 연결고리 못찾은 기업, 성장 없을 것”

성명기 여의시스템 대표이사, 상생포럼 혁신성장CEO과정 강사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성명기 여의시스템 대표이사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은 지난 11일 ‘상생포럼 혁신성장CEO과정 제1기’ 강사에서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게임체인저’로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과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면 앞으로 성장이 없을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은 중소기업이 하기에 제일 좋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정의는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바이츠가 말한 ‘디지털 기기와 인간, 물리적 환경의 융합에 의한 산업혁명’과 같다.

성 대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우선 최고경영자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책이라도 읽으면서 시작하고, 되풀이하며 실체를 파악하고, 회사의 제품과 4차 산업혁명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라”고 조언했다.

지금 당장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수준이겠지만 되풀이해서 만지다보면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다.

또 성 대표는 이노비즈에서 ‘혁신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회장으로 있는 이노비즈는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한다.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혁신 노력과 정부, 협회의 지원으로 기업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만8000여 기술혁신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153억원 수준이다.

이런 기업들을 대표하는 회장 자리에 있는 성 대표가 좋아하는 말 중 하나

성명기 여의시스템 대표이사가 지난 11일 ‘상생포럼 혁신성장CEO과정 제1기’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ESC 상생포럼



‘상생포럼 혁신성장CEO과정 제1기’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이 성명기 대표와 사진을 찍고 있다. /ESC 상생포럼

“CEO가 책 읽으며 실제 파악, 직원들에게 교육해야 졸업과 동시 창업 95% 실패... 취업해 경영 배울 것”

는 “고통의 삶을 사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그 이유는 성 대표가 여러 고통을 겪으며 현재의 자리에 왔기 때문이다.

성 대표는 “학창시절 꼴찌를 제일 많이 했다”고 말한다. 대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라디오를 만들고 부수는 취미를 가졌고 물리와 수학책을 즐겼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에 가기로 결심하고 학업에 열중해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한다. 당시는 의대보다 전자공학과에 입시 성적이 더 높았던 때로 정부 차원에서 전자공학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시절이기도 했다.

그렇게 1980년 3월 대학을 졸업한 그는 당시 대학생들의 꿈이던 대우그룹에

입사한다. 5년 만에 과장으로 진급하며 순조로운 직장생활을 했지만 과장 진급 후 한 달 만에 퇴사했다.

그 후 성 대표는 한 중소기업의 방위산업체 연구소로 이직해 일하다가 1983년 7월 아내와 지인과 함께 1.5평의 조그마한 사무실을 열었다. 네 달 만에 700만원의 흑자를 내며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만 세 살도 안 된 아들이 백혈병 판정을 받고 아내는 그 충격으로 6개월 된 아기를 유산한다. 이후 아들의 치료에 몰두하던 아내는 폐결핵에 걸린다. 아들과 아내의 치료가 마무리 되자 본인이 위암 판정을

받는다. 성 대표는 그 당시 “이 순간 내가 죽으면 온 가족이 죽는다. 나는 무조건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다면서 “요즘에는 하루하루 평범한 삶을 사는 것 자체에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쓴 두 권의 책 제목이 각각 ‘열정’과 ‘도전’인 이유도 같다. 성 대표는 다음 달 한 권의 책을 더 낼 예정이다.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의 자리에 온 성 대표는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강조한다. 또 창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취업을 해서 기업 경영 배우고 창업 아이템도 찾으라고 조언한다. 졸업과 동시에 창업하면 95%가 실패를 겪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눈높이를 낮출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성 대표는 “작년 이노비즈기업들이 7만5000명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3만4000명을 채용해 4만1000명을 채용하지 못했다”며 “요즘 청년들이 이노비즈 기업 같은 데도 안 온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을 한국, 중국, 일본에 빗대어 표현했다. 1980년대만 해도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5배였는데 지금은 1.3배가 됐고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아 스마트폰, 스마트TV,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된 것은 도전정신과 꿈 덕분이라는 것이다.

“저는 위기를 겪으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그는 오늘도 도전정신과 열정을 강조한다. /구서윤 기자 yun2514@metrosoul.co.kr

## 가맹점 성공... 프랜차이즈 본사 재정상태가 좌우

외식 프랜차이즈 20% ‘완전자분잠식’ 제과제빵 본부, 재정상태 가장 취약

프랜차이즈 선택 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공개서, 사업영역 등을 확인해 본사의 건강한 재정상태 여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19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10곳 중 2곳은 완전자분잠식 상태다. 특히 ‘제과제빵’ 가맹사업본부 136개 중 46개(33.8%)가 완전자분잠식 상태로, 조사 대상 세부업종 중 재무건전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아이스크림·빙수 31.6% ▲커피 27.8% ▲패스트푸드 26.2% ▲피자 21.1% ▲한식 17.8% ▲분식 17.2% ▲치킨 17% 순으로 전체 기업 수 대비 완전자분잠식 기업의 비율이 높았다.

완전자분잠식이란 기업의 적자폭이 커지면서 자본금을 완전히 잠식한 단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상태라는 의미다. 가맹사업본부가 완전자분잠식 상태라면 대출 및 투자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자연히 가맹점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지 않고 한 순간에 파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본사의 탄탄한 재정상태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디저트 전문 ‘카페피아모’는 이탈리아 정통 디저트인 ‘젤라또’를 판매한 1세대 브랜드로 꾸준히 사랑 받고 있는 곳이다. 오랜 시간 쌓아온 건강한 경영성과 덕에 자금이 부족한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사차원의 대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은행에서 선정할 우수프랜차이즈로 선정되면서 1금융권 은행들과의 창업대출 협약을 체결했다.

감자탕 전문 브랜드 ‘이바담 감자탕’은 체계화 된 물류유통과 교육, 본사의 탄탄

한 지원과 브랜드 파워로 예비창업자들의 호응이 높다. 이 모든 것은 20년의 경험에서 우리나라 본사의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본이 부족한 창업주들은 이바담이 창업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 1금융권의 은행대출을 지원하고 있어 자본 부담이 덜하다. 고품스러운 인테리어와 프리미엄 음식 메뉴로 각광받는 이자카야 브랜드 ‘청담이상’ 역시 1금융권과의 협약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자금 부담을 덜어내고 있다. 대부분 초보 예비창업자들의 경우 제 1금융권 신용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청담이상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은행과의 협약을 진행했다. 은행은 주로 브랜드의 인지도, 재무안정성, 재무구조 등을 꼼꼼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협약 만으로도 브랜드 자체의 재정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하루 한 알 ‘벤포벨’로 피로 회복하세요”

Advertorial Corner

최근 고품질 활성비타민이 육체피로 해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며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관련 시장은 매년 3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타민 제품을 고를 때 자신에게 필요한 성분인지, 함량이 충분한지, 활성형 비타민이 맞는지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선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중근당의 ‘벤포벨’ (사진)은 활성비타민인 벤포티아민을 포함한 비타민 B군 9종과 우르소데옥시콜산(UDCA), 코엔자임Q10, 비타민C, D, E, 아연 등을 복합적으로 함유해 하루 한 알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고품질 기능성 활성비타민 제품이다.

벤포벨의 주성분인 벤포티아민은 육체 피로와 눈의 피로, 신경통, 근육통 개선에 효과적인 활성형 비타민B1성분이다. 일



반 비타민 B1 제제보다 생체이용률이 높고 복용 시 약효가 빠르게 발현되며 오래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간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UDCA성분 30mg과 항산화 기능,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코엔자임Q10,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과적인 이노시톨, 면역 기능에 필수적인 아연, 비타민C, D, E 등 현대인들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성분이 최적의 용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제품은 1일 1회 복용으로 하루에 필요한 권장량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으며, 정제의 크기를 줄여 목넘김에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의 복용 편의성을 개선했다. /박인용 기자

## 이화의료원, 한부모 여성가장에 ‘건강검진’

이화 미래클 건강검진 캠페인 진행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한부모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여성정밀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이화 미래클 건강검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화의료원이 이번에 진행하는 이화 미래클 건강검진 캠페인은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 여성가장의 건강

검진을 지원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건강검진 기부 프로젝트다.

이번 캠페인은 기부를 원하는 이가 이대목동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특화정밀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한 명의 한부모 여성가장에게 여성정밀검사를 해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박인용 기자



이화의료원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여성정밀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이화 미래클 건강검진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화의료원

## 대웅제약 ‘나보타 공장’ EU GMP 승인

대웅제약의 나보타공장이 지난 18일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EU GMP 승인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6월 통합허가절차를 통해 EMA에 나보타 신약허가신청을 제출했고, 7월 허가신청이 접수됐다. 이후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경기도 향남에 위치한 나보타 제2공장의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EMA의 공장실사는 EMA에 소속된

각 국가의 규제기관 중 한 곳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이번 나보타 공장의 실사는 영국 의약품청(MHRA)에 의해 진행됐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중에 영국 MHRA 실사를 통과한 제품은 나보타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대웅제약 나보타공장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cGMP,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의 GMP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박인용 기자